

# “포교는 꽃과 벌처럼 상생하는 것입니다”

법문집 '꽃과 벌' 펴낸 헝가리인 청안 스님



“꽃과 벌이 만나면 벌은 꿀을 얻고 꽃은 씨를 맺게 됩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은 꽃과 벌처럼 상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에 이를 때 증생을 구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럽 각지를 돌며 한국 불교의 위대함을 알리고, 헝가리에 한국 사찰을 전통양식으로 건립하고 있는 청안 스님(사진)의 불교 이해와 명상 수행 이야기.

헝가리에서 태어나 승산 스님의 가르침으로 불교에 귀의한 청안 스님이 지난해 겨울 화제사

대적광전에서 내외국인 불자들을 대상으로 연 '불교의 이해와 명상 수행'에 관한 열두 차례의 법문을 책으로 엮었다.

이 책 <꽃과 벌>은 인생의 길에서 나침반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과 삶에 대한 의문을 품고 진리를 찾으려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전한다.

책의 구성은 1부 상좌불교에서는 무상관(영원한 것은 없다, 무정관(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없다), 무아관(나 라는 것은 없다), 십이연기,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 소개한다.

2부 대승불교에서는 상호의존, 중도, 불성, 의식의 여덟 단계, 보살도, 받아심경을, 3부 선불교에서는 선의 시작과 전법 전종, 선 수행의 단계, 명상법, 공안에 대해 세밀하게 설명해준다.

이 책에서 청안 스님은 명상 수행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스님은 “명상 수행은 현대 사회에 아주 중요하며, 인간에게 항상 중요한 그 무엇”이라고 말한다. “명상을 통해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 지에 대해 직접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스님은 “명상은 철학이나 심리학의 일종이 아니며, 과학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다. 명상은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명상을 하면 진리를 얻을 수 있지만, 명상을 하지 않으면 책을 통해 배울 수도, 법문을 이해할 수도 없다”고 설명한다.

스님은 “수행을 통해 매 순간 명확함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존재를 도울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게 해주시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실 것을 주십시오. 수행을 하면 ‘나’라는 생각, ‘나’의 작은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엔 큰 슬픔이 찾아오고, 큰 슬픔에서 큰 사랑이 나옵니다. 이것이 대자대비입니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증생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명확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꽃과 벌

청안 | 이민영 역 | 김영사 | 1만원

# 5대 종교에서 찾은 인류 구원의 길



종교는 하나다  
함상호 지음  
북인 | 1만8000원

유교, 불교, 그리스도교, 도교, 단군교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중요한 교리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터득하여 생과 사의 경계를 벗어나, 영원히 생사에 걸림이 없는 일체 지를 이루어 대 자유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교의 핵심 가르침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 생활에 활용한다면 한 차원 높은 마음의 경지를 터득하여 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인류의 구원을 모색한다. 인간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위주로 한 유교와 마음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위주로 한 불교, 그리고 몸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위주로 한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다.

내용은 각 종교의 종지(宗旨)를 이루는 최고 이상의 극치로 유교의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와 불교의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 그리스도교의 성부(聖父)·성자(聖子)·성령(聖靈) 삼위(三位), 도교의 천(天)·지(地)·인(人) 삼원(三元), 단군교의 환인(桓因)·환웅(桓雄)·환검(桓楨) 삼신(三神)을 들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경전의 해석을 통해 그 뜻을 더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 5대 종교의 진리를 비교하면서 각 종교의 특성과 다른 종교와의 유사성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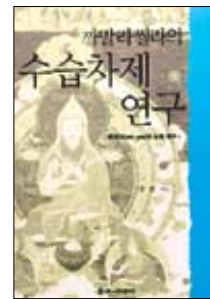
책의 구성은 저자가 깨달은 ‘참된 나’로 가는 ‘들어가는 장’과 3개의 장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특히 3장에서는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비교를 잠시 흥미롭게 다룬다. 두 종교의 비교를 통해 각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인 함상호 스님은 유교, 불교, 그리스도교, 도교, 단군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의 관심 내용을 담 아 8권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 인도 고승이 티베트에 전한 대승불교



가말라쉴라의 수습차제 연구  
중앙  
불교시대사 | 2만원

인도의 고승 까말라쉴라(Kamalasila, 740~795)가 설산에 사는 붉은 열골의 티베트인들에게 대승의 아름다움과 심오한 길을 바로 여는 주옥같은 법어들을 들려주었다.

이에 감탄한 티베트인들은 1200년 전 썸에서(Sam yas)의 대가람을 건립해서 무명의 어둠을 벗어나 진리의 삶을 열어가자 부처님의 말씀 배워나갔다.

까말라쉴라가 티베트인들에게 자상히 들려주었던 법어들을 모은 것이 티베트에서 저술된 모든 수행 지침서들의 의지처가 되는 어머니와도 같은 귀중한 책인 <곰핀(Gomrim)>이다.

티베트인들은 까말라쉴라가 몸을 바쳐 수호했던 인도불교의 전통을 온전히 보존하고자 어떤 이성과 편견도 한점 섞지 않은채 오늘날까지 그대로 지켜오고 있다.

이것을 번역한 것이 <중관수습차제(中觀修習次第)>다. 이 책은 광대한 대승의 심오(心要)를 빠짐없이 가려 모으고, 수행의 차

제를 정연하게 안배해서 대승 보살의 수행의 바른 길을 여범하게 밝혀 놓았다.

특히 까말라쉴라가 당시 티베트에 들어와서 선종의 ‘돈수’ 사상을 전파하던 중국 마하연 화상과 성불의 견해를 놓고 일대 격론을 벌인 썸에는쟁이 소개된다.

또 까말라 쉴라의 <수습차제>가 쯔가빠의 <람파첸모>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귀중한 자료다.

또한 중국 선종과 인도불교와의 논쟁을 교리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 대승의 진실한 의미를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티베트불교에 대한 선입관과 그동안 이해를 불신했고, 교학적인 입장에서 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좋은 안내서다.

중앙 스님은 1975년 사자산 법흥사로 입산 출가하여, 91년 남인도의 간덴승원 등지에서 티베트불교를 배웠다.

김원우 기자

# 고려시대 선승 34인의 시모음

한국의 시승-고려

로담 스님 | 고운 | 1만2000원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이자 불교문에 기획위원장인 로담 스님이 시 모음집 <한국의 시승-고려>를 발간했다.

이 시집에는 의천, 계음, 담수, 탄연 등 고려시대 선승 34인의 시를 담았다. 각 시의 앞부분에 시인의 생애를 간단하게 소개해 작품의 이해를 돕고 있다.

대각국사 의천, 무애지국사 계음, 대감국사 탄연 등 고려 전기와 중기 고승들을 비롯 <보현집> <시선> <복한집> <동국여지승람> 등에 시가 실려 있는 18명과 <파한집> <등문선> <동국이상국집> <한국불교전서> <대각국사문집> <진각국사어록> <나옹화상집> <태고화상어록>등에 나오는 16명 고승의 시를 더했다.

# 불교생명관 기초로 한 인생지침서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불교생명윤리정립연구위원회 편  
조계종출판사 | 1만원



이 책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는 현대사회에 조응하는 불교의 생명관, 인간관, 윤리관을 기초로 삶의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불교생명윤리정립연구위원회의 결과물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정리하지 못한 미진함은 있지만 불교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현대사회의 윤리적인 주요 사안에 대해 불교적 관점과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불교생명윤리’ ‘불교의 연기적 생명관’ ‘불교문화에 나타난 배아와 태아의 발달과정’ ‘생명조작과 불교생명윤리’ ‘낙태: 임신중절에 대한 불교의 견해’ ‘뇌사, 장기이식, 안락사’ ‘사형제도’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령소개’ 등이다.

# 경전 읽으며 죄 참회합니다

천불 천배 자비도량참법

화남 지음 | 정우서적 | 1만5000원



자비도량참법은 경전을 읽으면서 죄를 참회하는 불교의식을 말한다.

이를 수행하면 죄가 없어지고 복이 생겨난다고 하며, 죽은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여 극락으로 인도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공덕기원의 뜻을 담고 있다.

<천불 천배 자비도량참법>은 운허 율하 스님이 번역한 참법을 현대인들에게 맞도록 운문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10권에 적절히 안배하여 예참할 수 있도록 편집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독송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간추리고 정리한 약본이다.

# yosiamun.com 추천도서

- 산사도 머나는 여행 정인수, 김현미, 1만2000원, 문예마당
  - 절수행일문 대한불교조계종교역문, 6000원, 조계종출판사
  - 한 사상과 다이내믹코리아 최동환, 1만8000원, 지혜의나무
  - 마음이 단순해지는 선행 김홍근, 1만2000원, 마음산책
  - 꿈 미래의 열쇠 현오 스님, 2만원, 대유학당
- 도서주문: (02)2004-8219

# “신수 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고, 관련 분야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명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역학 개인지도 - 수시접수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 滿 行 靴 化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슬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방한용 털신



최고의 선물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지인) 서울 중로구 공평동 143번지 (두산위브 맞은편으로 이전)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재상 053)426-7300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인승복 062)228-2870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복, 모듬복, 장고, 징, 쟁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